

안전하고 현명한 금융생활을 위한 사이트 8선

* 출처: 금융감독원

 <p>개인정보 노출 등록 https://fine.fss.or.kr https://pd.fss.or.kr</p> <p>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'미안'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여 추가 피해 예방</p>	<p>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(https://pd.fss.or.kr)</p>	 <p>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www.msafar.or.kr</p> <p>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</p>	<p>휴대폰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(www.msafar.or.kr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는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경우, '개인정보노출자' 등록이 가능 신규 계좌개설, 신용카드 발급 차단 등을 통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명의의 이동전화, 인터넷전화 등 이동통신사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 나도 모르게 이동전화 등이 개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이동전화 개설을 통한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음 		
 <p>내계좌 통합관리 www.payinfo.or.kr</p> <p>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에서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확인하고, 필요시 일괄지급정지</p>	<p>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(www.payinfo.or.kr) (모바일앱) 어카운트인포</p>	 <p>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(www.credit4u.or.kr)</p>	<p>본인 신용정보 열람 서비스 (www.credit4u.or.kr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명의로 개설된 전 금융권 계좌(숨은 금융자산 포함) 및 대출, 보험정보 확인이 가능 나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는 일괄 지급정지하여 범죄 피해를 방지할 수 있고, 숨은 금융자산(소액비활동성 계좌)도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대출내역 및 연체 정보 등 본인 명의의 대출, 연체, 보증정보 확인이 가능 연체정보 확인 등을 통해 대출상환 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,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당한 채권 추심에 대응할 수 있음 		
 <p>금융상품 한눈에</p>	<p>금융상품 한눈에 (finlife.fss.or.kr)</p>	 <p>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(www.cardpoint.or.kr)</p>	<p>카드 포인트 통합조회시스템 (www.cardpoint.or.kr)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·적금, 대출, 펀드, 보험 등의 금리수준 및 거래조건 확인이 가능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상품별 금리, 만기 등을 손쉽게 비교해 자신에게 적합한 맞춤형 금융상품을 직접 찾을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카드사별 잔여포인트, 소멸예정포인트, 소멸예정월 등 확인이 가능 확인된 카드 포인트는 기부하거나 바로 현금화하여 사용할 수 있음 		
 <p>마이데이터 종합포털 (www.mydatacenter.or.kr)</p>	<p>마이데이터 종합포털 (www.mydatacenter.or.kr)</p>	 <p>통합연금포털</p>	<p>통합연금포털 금감원홈페이지 (www.fss.or.kr)에서 '통합연금포털' 클릭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마이데이터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혜택 및 자신의 가입 현황 확인이 가능 본인의 마이데이터 가입내역 일괄조회를 통해 불필요하게 가입한 서비스 해지* 등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리에 활용할 수 있음 (*해지는 개별사 앱에서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, 퇴직연금(DB, DC, IRP), 개인연금 등의 가입현황 확인이 가능 자신의 연금가입 현황, 개인연금 납입액 및 적립금, 미래 예상 수령액을 조회해 볼 수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미래 노후 설계에 활용할 수 있음 		

※ 금융감독원,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인터넷주소(URL)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